

# 치매노인들의 인지 수준에 따른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 및 인지지도 특성 분석 - 용인시 신갈동을 대상으로

박주현<sup>1</sup>, 이경환<sup>2\*</sup>

<sup>1</sup>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sup>2</sup>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 An Analysis of Spatial Perception Factors and Mental Map Characteristics in Neighborhood According to the Cognitive Level of Elderly with Dementia - A Case Study of Singal-Dong in Yongin

Ju-Hyeon Park<sup>1</sup>, Kyung-Hwan Lee<sup>2\*</sup>

<sup>1</sup>Dangjin Urban Regeneration Center

<sup>2</sup>Department of Urban Systems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비교 연구를 통해 치매노인들의 인지수준에 따른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 및 인지지도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용인시 신갈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경증 치매노인 13명과 일반노인 1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인지 요소 및 명료도와 관련하여 두 집단은 7개 공간인지 요소 중 교육요소와 놀이 및 휴게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명료도에서도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인지지도 유형에 따른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인지 특성을 비교한 결과 치매노인의 경우 공간적 유형 중 산재형 42.86%, 모자이크형 14.29%로 나타났으며, 인지지도를 분석해보면 치매노인들은 동네를 특수한 경관, 장소, 지표물, 구역을 중심으로 인지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치매노인들은 케빈 린치의 5가지 도시이미지 요소 중 랜드마크 요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spatial cognitive factors and cognitive map characteristics in the neighborhood according to the cognitive level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rough a comparative study between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general elderly. A study was conducted on Singal-dong, Yongin-si, and 13 elderly people with mild dementia and 13 general elderly people.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spatial cognition factors and intelligibility, the two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seven spatial cognition factors in the educational and play and rest factors. Regarding clarity,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Second,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general elderly were assessed according to the type of mental map. In the c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42.86% of spatial types and 14.29% of the mosaic type were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recognizing special landscapes, places, surface objects, and areas were strong. In addition, the elderly with dementia had a high awareness of the landmark element among the five urban image elements of Kevin Lynch.

**Keywords** : Elderly with Dementia, Neighborhood Environment, Spatial Perception, Cognitive Level, Mental Map

이 논문은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R1A2C1011394)

\*Corresponding Author : Kyung-Hwan Lee(Kongju National Univ.)

email: khlee39@kongju.ac.kr

Received March 18, 2022

Revised April 22, 2022

Accepted July 7, 2022

Published July 31, 2022

## 1. 서론

고령화로 전 세계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 환자의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인류의 주요 건강 위협요소로 규정하고, 국가별 치매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2012년 G8 치매 정상회담(G8 Dementia Summit)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 치매 관리 액션플랜을 발표하는 등 치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인 치매친화적인 지역사회모델이 도입되고 있다. 치매친화적인 지역사회모델은 2009년 영국에서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하면서 처음 생겨난 개념으로 기존의 치매 예방 및 치료를 넘어 시민 모두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치매 노인들을 포용하고 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통해 익숙한 환경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가는 것은 치매노인들에게는 필수적이다. 실제 많은 치매노인들이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살기를 희망하며, 의학적으로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동네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치매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치매 친화적인 근린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치매노인들은 외부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운동 부족, 사회적 고립, 자존감 결여는 치매노인들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치매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치매친화적인 지역사회모델 구축과 치매친화마을을 조성을 위해 치매 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친화적인 근린환경은 일반적으로 치매가 있어도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네 환경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친화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사업의 경우 주로 요양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는 대부분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과 함께 치매노인들이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Mitchell et al.(2004)은 근린환경을 치매노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 조성

한다면 치매 초기에 긍정적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치매와 근린환경의 밀접한 연관성을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치매노인의 경우 일반노인에 비해 거주하고 있는 동네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1]. 다만 지금까지 치매노인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한정적인 실내 공간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 보건분야 연구가 대부분이며, 치매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근린단위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용인시 신갈동을 대상으로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비교를 통해 치매노인들의 인지 수준에 따른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 및 인지지도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2.1 인지 능력에 따른 공간인지 및 인지지도특성

일반노인과 달리 치매노인은 기억력, 지남력, 주의 및 집중력, 판단력 등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인지적 행동 특성을 보인다[2]. 기억력 감소는 장기 기억력보다 단기 기억력 감퇴가 먼저 나타나 공간, 사물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남력 저하로 집을 찾지 못하거나 심각한 경우 방이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게 되며, 주의 및 집중력 저하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며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3].

공간인지는 공간의 구조, 실체, 관계 등에 관한 지식으로 사고 속에서 공간을 재구성하여 공간에 대해 내면화된 생각으로 정의된다[4]. 이와 관련하여 Lynch(1960)는 도시공간에 대한 이미지 연구를 통해 도시공간 이미지를 통로(Path), 지구(District), 결절점(Node), 경계(Edge), 랜드마크(Landmark) 5개 요소로 구분하고 도시의 심상이미지를 인지지도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다[5]. 또한 Appleyard(1970)는 인지지도 유형 분류를 통해 우리 동네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한 뒤 인지 발달과 연관이 있는 공간적 유형을 구분하였다[6]. 하지만 김재일(2001)의 주장과 같이 사람마다 공간인지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인지 구성요소는 개인의 인지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7].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공간인지 수준은 공간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조사대상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하고

개인에 따른 지도 작성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인지지도 상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주로 시각적인 단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인지능력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2.2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는 치매노인들의 인지수준에 따른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와 인지지도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와 심층적으로 대면하고 근린 내 인지하고 있는 공간인지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치매노인과 일반노인 두 집단의 근린환경 인지 요소 특성과 명료도를 조사하고 그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지도 (Mental map) 매핑을 통해 인지지도 특성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분석한다.

## 3. 분석의 틀

### 3.1 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치매인구비율, 고령자 인구비율, 치매안심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접근성, 치매안심마을사업 진행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경기도는 60세 이상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수가 2021년 기준 188,5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용인시는 삼성전자의 DS 치매극복후원금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치매예방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로 신갈동이 위치한 기흥구에는 치매안심센터 1개소, 노인복지시설 3개소가 위치해 있다. 신갈동은 2022년 기준 고령자 인구가 5,503명으로 고령자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다양한 치매안심마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상지 내 위치한 기흥노인복지관에서는 KB국민은행 총명학교, 정서지원사업 WellLife, 치매안심센터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등 치매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Table 1. Prevalence of Dementia Patients in Korea in 2021

Region	Estimated number of dementia patients over the age of 60	Region	Estimated number of dementia patients over the age of 60
Gyeonggi	188,537	Daegu	40,995
Seoul	151,772	Gangwon	36,813
Gyeongsangbuk	67,077	Chungcheongbuk	33,199
Gyeongsangnam	63,883	Deajeon	21,969
Busan	63,149	Kwangju	21,617
Jeollanam	53,848	Ulsan	13,089
Chungcheongnam	49,566	Jeju	12,364
Jeollabuk	46,298	Sejong	3,836
Incheon	42,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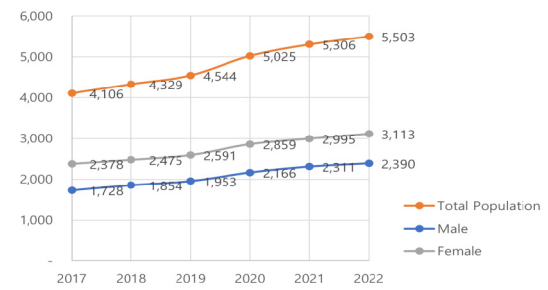


Fig. 1. Changes in the aging population in Singal-dong

###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위크숍을 통해 공간인지 요소 및 명료도 조사, 인지지도 조사, 인지지도 매핑 조사를 수행하였다. 위크숍은 2019년 11월 8일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위크숍에는 치매진단은 받았지만 일상 대화가 가능한 경증 치매노인 13명과 일반노인 13명 총 26명이 참여하였다. 각 집단별 기술통계량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general elderly group

Characteristic	N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Gender	13	0	1	0.31	0.48
Age	13	70	95	79.38	6.46
Period of residence	13	1	19	6.77	5.00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f the dementia elderly group

Characteristic	N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Gender	13	0	1	0.08	0.28
Age	13	72	90	81.15	6.09
Period of residence	13	2	20	8.23	5.59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 및 도시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 및 명료도, 인지지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는 Appleyard(1970), 허윤선 외(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Table 3과 같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SPSS 21을 이용한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고, 추가로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동네에 대한 명료도를 함께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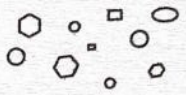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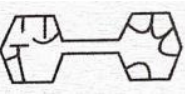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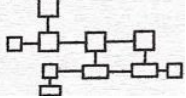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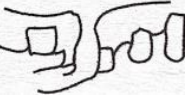
Table 4. Separation of space or element

Characteristic	Space perception element
Residential element	Type of house (apartment, house, villa, etc.), my house, my friend's house
Educational elements	Schools (neighboring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s, universities), kindergartens, and other educational facilities (driver's license test center, etc.)
Play and rest elements	Parks, mountains, sports facilities (golf courses, swimming pools, etc.), playgrounds, playgrounds, and other rest facilities (bathrooms, etc.)
Public factor	Welfare facilities (welfare halls, senior citizens' halls, etc.), government offices (city hall, district offices, etc.), financial facilities (banks), medical facilities (hospitals, pharmacies, oriental medicine clinics, etc.), religious facilities, libraries, etc.
Shopping mall element	Shops and markets (supermarkets, marts, markets, etc.), restaurants, shops (clothes stores, mobile phone stores, etc.)
Transportation element	Streets (roads, sidewalks, alleys, etc.), transportation facilities (village buses, subway stations, bus stops, etc.)
Others	Trees, trash cans, guard rooms, etc.

인지지도는 Appleyard(1970), 김영환(2011), 허윤선 외(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Table 5와 같이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는 공간적 유형을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환(2011)은 공간적 유형은 특히 연령에 따른 인지능력의 발달단계와 관계가 깊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른 공간적 유형은 산재형,

모자이크형, 연결형, 패턴형으로 구분된다.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방법론을 활용하되 참여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일상대화가 가능한 정도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5. Types of Cognitive Maps in Appleyard (Spatial Types)

Cognitive map type	spatial type	
topological	 Scattered type	 Mosaic type
positional	 Connected	 Patterned

## 4. 분석결과

### 4.1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 특성

치매노인과 일반노인 두 집단의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7가지 요소 중 교육요소( $t=2.309, p=0.040$ )와 놀이 및 휴게요소( $t=2.412, p=0.024$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경우 근린 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주거, 공공시설, 상가, 교통요소는 일반노인과 비교했을 때 인지 정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놀이 및 휴게요소와 같이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근린 요소에서는 인지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치매노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노인과 달리 근린 시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선택적 활동의 영역이 일반노인에 비해 한정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도시이미지 명료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두 변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비모수 독립변인 검정을 이용하였다.

Table 6. Analysis of perceived spatial perception components of our neighborhood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of the elderly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p)
Residential element	General	13	0.46	0.66	-0.832 (.414)
	Dementia	13	0.69	0.75	
Educational elements	General	13	0.31	0.48	2.309 (.040)**
	Dementia	13	0.00	0.00	
Play and rest elements	General	13	1.08	0.64	2.412 (.024)**
	Dementia	13	0.46	0.66	
public factor	General	13	0.92	0.64	-1.543 (.136)
	Dementia	13	1.31	0.63	
Shopping mall element	General	13	0.62	0.87	0.965 (.344)
	Dementia	13	0.31	0.75	
Transportation element	General	13	0.46	0.52	-1.177 (.251)
	Dementia	13	0.69	0.48	
Others	General	13	0.15	0.38	1.000
	Dementia	13	0.15	0.38	

\*p<0.1, \*\*p<0.05, \*\*\*p<0.01

Table 7. Clarity Analysis of the Dementia Elderly and the General Elderly Group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of the elderly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Clearness	General	13	4.85	1.41
	Dementia	13	3.54	0.97
Z(p)	-2.362(.018)**			

\*p<0.1, \*\*p<0.05, \*\*\*p<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반노인의 도시이미지 명료도가 치매노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집단 간 명료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Mann-Whitney U=40.00, p=0.01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린환경 요소의 인지 범위가 작은 치매노인들의 경우 근린환경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일반노인들에 비해 살고 있는 동네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4.2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인지도도 특성

공간적 유형에 따라 인지도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 Table 9와 같다. 일반노인의 경우 산재형이 21.42%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결형이 14.29%, 패턴형

이 7.14%로 나타나 위상적 형태와 위치적 형태로 공간을 인지하는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치매노인은 산재형이 42.8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모자이크형이 14.29%로 나타나 일반노인과 달리 위상적 형태 위주로 공간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치매노인들의 경우 동네를 특수한 경관, 장소, 지표물 등을 중심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일반노인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치매노인은 도시이미지 5개 요소 중 랜드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공간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노인들의 경우 구체적이고 위치적으로 공간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위상적으로 각자에게 의미 있거나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공간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일반노인의 경우 간선도로, 지선도로와 같은 선적인 요소를 통해 국면이 완전하게 연결되어 매우 복잡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패턴 유형이 나타났으며, 도시이미지 요소 중 통로, 랜드마크, 연결점, 구역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노인의 경우 치매노인과 달리 다양한 도시이미지 요소에 대해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적인 관계를 인식하여 추상적으로 공간을 인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8. Type of cognitive map

Spatial category	Topological	Scattered type			
	Positional	Mosaic type			
Positional	Connected type				
Positional	Patterned type				

Table 9. Analysis by type of cognitive map

Cognitive map type		General old man	Dementia old man	Total	
Spatial category	Topological	Scattered type	3 people (21.42)	6 people (42.86)	9 people (64.28)
		Mosaic type	-	2 people (14.29)	2 people (14.29)
	Positional	Connected type	2 people (14.29)	-	2 people (14.29)
		Patterned type	1 people (7.14)	-	1 people (7.14)

## 5. 결론

본 연구는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비교연구를 통해 치매노인들의 인지수준에 따른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 및 인지지도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인지 요소 및 명료도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공간인지 요소 중 교육요소와 놀이 및 휴게 요소, 그리고 명료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린환경 요소의 인지 범위가 작은 치매노인들의 경우 근린환경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일반노인들에 비해 동네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인지지도 유형에 따른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인지 특성을 비교한 결과 치매노인들의 경우 산재형 42.86%, 모자이크형 14.29%로 나타났는데, 특히 치매노인들이 그린 인지지도 특성을 분석해보면 치매노인들은 동네를 특수한 경관, 장소, 지표물, 구역으로 인지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랜드마크 요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치매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치매노인들의 근린 내 공간인지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비교를 통해 인지 능력에 따른 두 집단의 근린 내 공간인지 요소 및 인지지도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의 결과물이 치매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L. Mitchell, E. Burton, S. Raman, "Dementia-friendly cities: designing intelligible neighbourhoods for life", *Journal of Urban Design*, vol.9, no.2, pp.89-101, 2004. DOI: <https://doi.org/10.1080/1357480042000187721>
- [2] Y. Lee, *Theory of Family Problems*, HAKJISA, 1999.
- [3] E. Oh, "A Study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Effect of Living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e*, vol.16, no.6, pp.41-50, 2000.
- [4] Y. Huh, B. Yang, S. Im, "A study on the components of children's spatial perception of our neighborhood: Focusing on children's questionnaires and awareness

analysis", *Korean Society of Land and Urban Planning*, vol.47, no.1, pp.243-255, 2012.

- [5] K.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80.
- [6] D. Appleyard, "Styles and methods of structuring a city", *Environment and Behavior*, vol.2, no.1, pp.100-117, 1970. DOI: <https://doi.org/10.1177/001391657000200106>
- [7] Y. Kim, "A Study on the Landscape Cognition and Urban Image of Cheongju Citizen", *Korean Architecture Society*, vol.27, no.7, pp.143-150, 2011.

박 주 현(Ju-Hyeon Park)

[정회원]



- 2019년 2월 : 국립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공학사)
- 2020년 2월 : 국립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전공(공학석사)
- 2020년 4월 ~ 현재 :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관심분야>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재생, 고령친화도시

이 경 환(Kyung-Hwan Lee)

[정회원]



- 2000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공학사)
- 2003년 2월 :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협동과정(공학석사)
-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도시설계전공(공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국립 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도시계획 및 설계, 보행친화도시, 도시재생